

너를

81

2017 하반기

〈나눔터〉 81호를 함께 만든
기자단 Meka 27기를 소개합니다.



모태흥부자_곰지



순수소행성_동동



배고픈사람_수진



아임커밍쑤_경현



성숙의지표_세린



그대로두렴_도란

퍼넬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넬이 이미경 퍼넬날 2018년 1월 31일 만든지 노선이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2890~1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18회 귀어문화축제_18번 부스 백배 즐기기
- 7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_함께 한 100시간을 돌아보며
- 11 2017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후기_마이크를 잡은 사람들
- 15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_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 18 연구소 올림의 연말정산_역고소와 사이버성폭력 사이에서
- 21 한해보내기_Club Angela

24 원대!상담소

26 열림터 다이어리

28 성폭력과 사람들

- 28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 30 [시] 친절하게도
- 32 [열림터에서] 나는 말했다
- 33 [투고] 산티아고에서 찾은 길 (2/2 연재)

37 만나고 싶었습니다

- 37 상담소 OLD & NEW_상담원교육 수료 활동가편 '중신님과 신아님을 만나다'

42 성문화 읽기

- 42 〈파도 위의 여성들〉 리뷰_지금,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46 시골시골 상담소

- 46 성폭력 가해자 교육 연구 소모임 〈decoding〉
- 49 〈육식의 성정치〉 책읽기 소모임
- 52 상담소의 겨울날이들

54 아낌없이 주는 나무

- 54 후원회원 명단
- 55 후원방법 안내

56 훈훈한 기부

18회 퀴어문화축제

18번 부스 백배 즐기기

감이_자기방어도 악력도 최약체

,

〈나중은 없다, 지금 내가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건
열여덟 번째 퀴어문화축제가 7월의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시청광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축제를 즐긴 그 날,
18번 부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백 개가 넘는 부스가 빼곡하게 시청광장을 둘러쌌고, 그 둥근 광장 내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성소수자들과 이
에 연대하는 엘라이(ally)들로 가득해 행복감이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도 이번만큼은 축제를 재미나게 즐겨보자고 의욕이 충만했
었지요. 부스 운영도 시간대별로 활동가를 배정해서 퀴어명절 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굿즈 선점의 기회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스가 너무 재미있었는지, 활동가들이 부스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지요.

〈길거리괴롭힘의 대응 전략을 나눠주세요.〉

사례 길거리에서 롤렛 경품이벤트를 한다. 커플 이벤트라서 “우리 커플이에요”했는데,
“둘 다 여잔데 왜 커플이냐고, 더 남자같은 사람이 나중에 성전환 하고 오라”고 한다.

사례 술집 화장실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머리가 짧은 나에게 “여자가 머리가 왜 이리
짧아?”라며 “벗어봐”, “남잔데 여자인 척 하는거 아냐?” 라며 계속해서 말을 건다.



● 〈길거리괴롭힘의 대응 전략을 나눠주세요.〉 포스트잇으로 꽂찬 보드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보는 코너였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조
용히 무시하거나, 짜려보거나, 욕을 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 앞에서 키스를 진하게 해버리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등 수백 개의 현
실적이고도 기상천외한 대응 방법들이 폼보드를 가득 채워서 몇 번이나 포스
트잇을 정리하고 또 했답니다.

퀴어셀프디펜스 체험코너 〈선 밖으로 밀어봐!〉

여름에 진행한 <퀴어셀프디펜스: 청소년편>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코너도
마련했습니다. 강사 류운과 가는달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모난 선 안에서 밀
기의 기본자세로 류운을 밀어내는 미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
을까?’하는 생각에 약간 움츠러들었던 분들도 계셨고, ‘별로 크지도 않으니 쉽
게 밀리겠지’라고 호기롭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땀별 아래에



● 자기방어훈련 경력자인 오매에게 밀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감이

서 딱 버티고 선 류운을 선 밖으로 밀어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
대 별로 이어진 체험코너는 자원활동가들의 활약으로 금세 신청이 마감되었
고, <퀴어셀프디펜스> 홍보도 아주 멋지게 해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하
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악력테스트 <잠자는 손아귀의 힘을 깨워라>

손힘 세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악력기를 이용해서 손의 힘을 깨우는 코
너에는 도전자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 단연 돋
보였던 1등은 한 손으로 무려 52.5kg를 찍어주셨지요. 참고로 제가 35kg정도
찍었고, 오매가 39.4kg를 찍었더랬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비를 피하러 오신
분들도 모두 이 악력기는 한 번씩 손에 쥐어 보셨을 거예요. 쉽게 도전하고 재
미있는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답니다. 🙋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함께 한 100시간을 돌아보며

세린_나눔터 기자단 Meka 27기

,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이 열렸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 3년 만에 열린 교육입니다.
지원자가 많아 교육생 모집이 예상보다 빨리 마감되었고,
신청자 전원이 수료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된 교육과정을 후기를 통해 전합니다.

지난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을 돌아봅니다. 당시 저는 청년젠더활
동가라는 이름으로 잠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담소의 활동가인 선민, 신아님과 함께 교육을 준비하고 또 이수할 수 있었
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자료집을 편집하고, 강의실에 걸어둘 현수막을 뽑
고, 주변 식당 목록을 만드는 일 등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동안 교육과정
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35명의 수강생들이 이
안젤라홀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폭력 관련 교육을 100시간이나 받으러 찾아오는 걸
까 궁금했습니다. 평일을 꼬박 투자하려면 꽤 큰 각오가 필요하니까요. 오리
엔테이션 때 자기소개를 했는데, 모인 분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상담사로 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퀴어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대학 내 성폭력 사건 해결
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이제 막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
마다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리며 교육을 마칠 수 있을까? 걱



● 이안젤라홀을 여성주의 상담 공부 열기로 꽂 채운 교육생들

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강생들 사이에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조별 모임 수업이 있는 날이면 늘 평가서에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성폭력 관련 교육이 모두 여성주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은 교육을 수료한 뒤에 알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상담소에서의 상담원 교육은 여성주의를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 초기에는 여성주의의 역사, 한국 남성의 남성성, 젠더 감수성 등 여성주의 전반에 대한 강의가 많았습니다. 강의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았던 변혜정 선생님의 강의가 특히 기억에 납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같은 말들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강의에서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폭력 관련 개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성폭력 '상담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지원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본교육인 만큼 교육을 받더라도 바로 상담원으로 일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성폭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알아야하고, 전국 각지의 성폭력상담소,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 임시 보호시설과 같은 지원 체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단순한 정보로만 늘어놓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상임대표가 각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지원 체계의 변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뜨린 일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폭력은 실제 발생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속에서 마주치는 피해자의 모습 또한 다릅니다. 아동 성폭력, 학내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과정에서의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친족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공동체 내 성폭력, 그리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까지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 곳곳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때로는 강의실에서 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방어훈련이나 댄스 테라피,

여성주의 상담을 함께 하는 동안 서로를 다독이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았고, 생존자의 숨은 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수강생 간의 유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수강생들과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갔던 때를 뽑고 싶습니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구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작은 법정의 방청석이 수강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가 기소 근거로 제시한 범행 수법에 수강생들은 함께 분노했습니다. 교육에서 수사·재판 절차에 대해 배운 것들을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되었을 때에야 법이 성폭력으로 인정해 주는 한계나 2차 피해, 역고소의 위험은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함께 답답해했습니다.

교육과정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꽤 흐른 지금, 29기 수강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강의 시간 말고는 수강생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거나 하지 못해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몇 분들과 강의 이후에도 여성폭력과 관련한 행사나 시위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을 기대해봅니다. 교육과정 이후에 더 깊어진 고민과 질문을 잊지 않으려요. ☹️



● 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의 담당자들 (왼쪽부터) 선민, 신아, 세린

2017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후기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

노경현, 홍수진_2017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

9

11월 24일,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는
2017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__, 마이크를 잡다>가 열렸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준비해 온
기획단의 생생한 후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이하 '말하기대회')는 이 시대의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음악, 언어 등으로 다양하게 청중들과 공유하고 연대와 지지의 시간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 __, 마이크를 잡다>라는 이름처럼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 생존자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나눴던 지난 행사와는 다르게, '열린 말하기' 시간을 두어 말할 준비를 미리 한 '이끌이'들뿐만 아니라 청중들도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은 터져버릴 것이다.”*

- 미국의 여성 시인 뮌리엘 루카이어 (Muriel Rukeyser)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이끌이 '갑나무'님의 발언 중 발췌.

말하기대회는 어느 행사보다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인 행사입니다. 경험을 ‘말하지 못함’을 겪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음’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변화를 겪으며, 함께 하나의 유리장벽을 뚫고 나가는 듯한 심리적 충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기획을 이모저모 따져보았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개인적인 경험이 알고 보면 억눌린 사회의 단면이라는 사실은 제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행사의 기획단을 하든지 행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곤 합니다. 이유는 그때마다 비슷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이번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린 말하기”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막지 못해 행사에 참여한 생존자들이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게 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팻말을 미리 준비해둘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참여자들이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설문지에 답을 하도록 하여 사상 검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대회의 분위기가 참여자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는 건지, 열린 말하기 시간에 한 참여자가 “피해자였던 사람이 자신을 떠났는데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어진 이کم이들의 말하기에서 그 참여자의 눈물이 자기연민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나누며 저희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말하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행동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불편해 하고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의 말하기대회에서는 미리 어떠한 취지들의 발언은 삼가달라고 공지했으면 합니다.



● 빈칸을 채워서 완성되는 말하기대회 피켓



● 생존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보드

앞의 일을 제외한다면, 말하기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준비했던 다과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참여자들은 용기종기 모여 앉아서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이کم이들의 말하기는 담담하면서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천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공간을 모조리 휘어잡고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참여자들의 머리 위로 반짝이며 쏟아져 내리는 듯한, 말 그대로 불꽃같은 말하기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앞자리에는 다양한 표정의 참여자들이 보였습니다. 이کم이들이 용기를 내어 하는 아픈 말에 우는 사람, 재미있는 표현에 웃는 사람,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은 사람... 저희가 준비한 말하기대회

의 무게감을 강렬하게 느꼈고, 저희 역시 오랫동안 눌러왔던 상처를 위로받는 듯 하여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말하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다”**

한 이꿈이가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 말이 저희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언어의 힘, 말하기의 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정과 경험이 언어가 되어 단단해지고, 입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움직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의 힘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저희처럼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며,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손을 잡아준다면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하기는 계속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덕분에인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핫핫! ☀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이꿈이 '아메'님의 발언 중 발췌.

차별금지법제정촉구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곰지_나눔터 기자단 Meka 27 |

“평등을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 9일, 바람이 차가운 토요일이었지만 광화문은 차별금지법제정을 바라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집회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첫 번째 집회였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광화문 파인센스센터 앞의 행사장에는 다양한 단체에서 준비한 깃발이 내 걸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많은 단체가 연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를 초월하여 함께 모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평등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말이 제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자유 발언은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난다활동가, 베트남공동체 원옥금 대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가 이끌었습니다. 가족 형태, 학벌, 출신 국가, 섹슈얼리티, 주제는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누구나 평등과 인권을 보장받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필요한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촉구집회의 행진 모습(좌) /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멋진 무대(우)



● 지리산, 오매, 감이의 집회 참가 릴레이인증샷

누군가의 인권은 우선으로 하고, 누군가의 인권은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바로 맞닿아있기에,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자유 발언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퀴어 댄스팀 큐캔디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광화문파이낸스센터에서 출발하여 종로와 청계천을 행진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정상’으로 찍힌 낙인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 속의 차별과 혐오가 다른 이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 날, 함께했던 모두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권은 목숨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연구소 올림의 연말정산

역고소와 사이버성폭력 사이에서

신아_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연구원

,

2017년에 연구소는 가해자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를 펴내는 등 여러 활동을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굵직한 두 개의 프로젝트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와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제작-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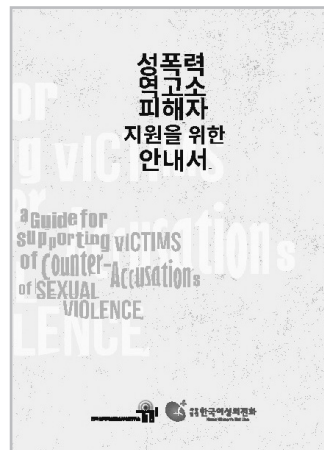
2015년 이후 온라인은 성폭력과 페미니즘 담론, 여성들의 말하기로 뜨거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저희 연구소도 서울시,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와 함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촬영/(재)유포/성적합성/사이버불링을 포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성폭력, 성매매, 협박갈취 등으로 이어지거나 중복피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더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며, 온라인 공간에 친숙하고 사용이 잦을수록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만들고는 있다지만,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아직은 문제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SNS에서 사진 유포피해를 입어 신고하면서 담당 경찰에게 SNS 사용법부터 알려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수사에 무능한 것이지요. 어떤 피해자는 삭제지원단체를 몰라서 며칠 밤에 걸쳐 스스로 영상물 키워드를 찾아내어 신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리 '삭제지원'을 가장 큰 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 영상을 찾거나 비용을 들여 지우는 일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을 통해 이윤을 챙기려드는 장사꾼들과 소비자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현실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긴 여정을 함께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과 서로 배우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은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며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진의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뚜렷했습니다. 성폭력 수사 지침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법기관, 수사관의 통념, 가해자의 위협과 협박, 왜곡된 언론보도와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성폭력 역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의심과 그릇된 통념이 '혐의'를 밝힌다거나 '수사'라는 이름 아래 마구 드러납니다. 더 이상 언론,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채 마음대로 의심하지 못하

게 하고, 역고소 사건의 진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11월의 어느 회의에서는 가해자들의 마구잡이 역고소가 이제 ‘보편적’인 행동이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는 도리어 피의자/피고인이 되어 전혀 다른 세팅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두고 토론했습니다. 성폭력 역고소는 거대한 백래쉬의 일부이며, 지금의 사법시스템은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법’을 이용해 거리낌 없이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잡한 역고소 재판에서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최대한 이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권리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임을 부정당하더라도 당당하게 피해자임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고요.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 매뉴얼은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신청해주셨는데요, ‘하고 싶은 말’과 ‘신청이유’에 많은 사연들을 써주셨습니다. “성폭력 고소 중인데, 역고소 위협을 받고 있다/대비하고 싶다”, “가해자의 역고소 위협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가까운 친구가 역고소 당했을 때 아는 게 없어 도와주지 못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와 달리 대응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더 잘 지원/상담 하고 싶다”.. 등 여러 사연을 보면서 이 안내서가 어떤 분들에게 가닿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금은 새로운 지도를 그려봤기 때문에 연구소 활동가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질문으로 과제를 만들고 연구해나가야겠습니다. 🙏

한해보내기

Club Angela

동동_나눔터 기자단 Meka 27 |

9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7년 송년회 <한해보내기>의 2부 행사인 'Club Angela'가 열렸다.

상담소 건물 B1 이안젤라홀에 진짜 클럽처럼 조명을 달고 음악도 크게 틀어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상담소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 일 것이다.

이 날, 어쩌다가 이안젤라홀이 클럽이 되어 모두를 춤추게 했을까?

처음 이안젤라홀을 춤추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진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해마다 진행하는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에서였다. '자기방어훈련'은 호신술을 익혀서 폭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억제된 몸을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나아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학교 운동장은 '힘이 있는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게 몸을 움직여보고 또 큰 소리로 외치며 함께 팀워크를 맞춰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물리적 폭력에 몸으로 대응하는 법과 반격을 위한 근력을 기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장에서 익히는 마음가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시선주고받기'에 익숙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과 몸가짐이 뚜렷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드넓은 운동장에서 자신의 또래들과 함께 서로 몸을 움직여 힘 싸움을 하고 경쟁을 벌이며 다가올 미래를 미리 경험한다.

그러나 운동장의 지분이 아주 조금, 혹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 이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자기방어훈련'은 시간을 다시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좀처럼 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던 그 몸과 마음의 설정을 관계있게끔 하려는 과감한 시도이다.

운동장에서 클럽으로 가보자. 클럽은 미디어에서 흔히 묘사하는 섹슈얼한 이미지와 달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댄스 학원을 등록해서 배우거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한 춤을 추고 싶다면 클럽 말고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클럽에서 춤출 수 있어야 한다. 클럽도 춤을 추면서 몸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운동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그런데 클럽이 소위 '고추밭'이라서 못가겠다는 불평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온다.

넓은 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춤을 추는 곳이다보니 흥겨움과 무례함이 미묘하게 섞일 수밖에 없지만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은근히 섹슈얼한 분위기와, 그 분위기를 업고 자행되는 성희롱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무례함을 겪다보면 클럽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으며, 가더라도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클럽의 남성중심적인 공간성은 이 때문에 더욱 커진다. 'Club Angela'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다.



● 레터링 설치 중인 기획단 주미님



● 클럽 안젤라

'Club Angela'는 자유로이 다른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내고 즐겁고 신나게 춤을 추며 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잠깐의 '클럽'이 되어 주었다. 가운데는 홀을 비워 모두 일어나 춤을 추도록 했고 한쪽에는 앉아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했다. 위층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페미니즘 타로를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미리 클럽에 어울리는 음악을 준비했고 혹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규칙을 만들어 함께 읽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도, 춤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놀았다. 이안젤라홀을 거창하게 '대안 클럽'이나 '대안 문화'로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모두가 자유롭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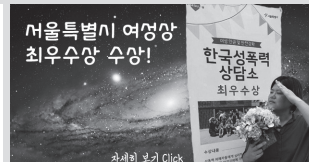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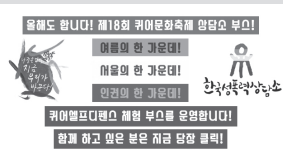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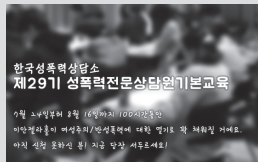
2017년 하반기에도 된다! 상담소

된다 상담소

된다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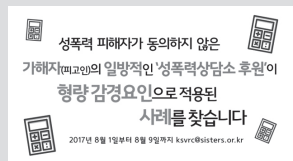
7월

- 서울시 여성상-최우수상 수상 (7/1)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에 대한 무죄로 판결 (7/5)
- 18회 퀴어문화축제 상담소 부스 (7/15)
- 한국성폭력상담소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 (7/24~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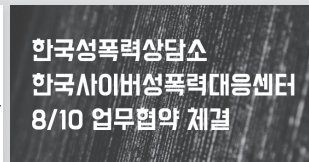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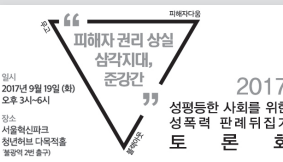
8월

-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대위 기자회견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8/8)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의 업무협약 (8/10)
-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발간(8/31)



9월

-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기자회견 (9/14)
- 2017 판례뒤집기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토론회 (9/19)



10월

-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서명운동 (9/12~12/8)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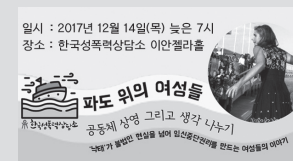
11월

- 탁현민 사건의 현재진행형에 대한 여성운동 집담회 〈그 '정치'가 놓친 것들: We Can Speak〉 (11/6)
- 사이버성폭력 OFF 제1회 토크콘서트 〈난 너의 아들이 아니야〉 (11/11)
- 2017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____ , 마이크를 잡다〉 (11/24)



12월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성폭력사건 의미와 쟁점 토론회 (12/6)
- 한해보내기 〈Angela Award & Club Angela〉 (12/8)
-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 그리고 생각 나누기 (12/14)
-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대위기자회견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2/14)



열린터 다이어리 2017. 6-12

6월



♥ 3월에 시작한 <치유하는 글쓰기 수업>이 어느새 끝을 맞이하였습니다.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느라,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용기를 가지느라 꽤나 분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4개월간 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생활인들의 생애를 마주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마음 곁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라는 고단함의 이면에는 이해의 싹이 숨겨져 있었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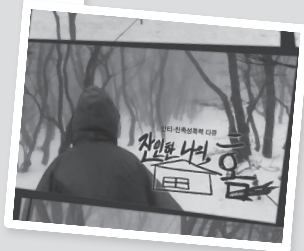
7월



♥ 열린터에선 7~8월 두 달간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주 2회 기초체력을 다지고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도 줄이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온 몸이 쭉شى고 결린다고 투덜대지만 실전에 버금가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오랜만에 밀린 잠을 자면서 느긋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주말에는 더위를 피해 영화감상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 여름밤, 다큐멘터리 영화 "잔인한 나의 흠"을 보고 주인공과 이야기도 나눠보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친 어느 오후에는 찜질방에 가서 쉼과 즐거움도 찾아보았습니다.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하고, 느긋한 하루도 즐겼으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여름방학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눈을 비비며 마음을 다잡고 학교 혹은 일터로 나가봅니다.

8월



10월



♥ 이달 열린터 식구들은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여러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영화와 판토크림 관람, 볼링장, VR체험을 하며 바쁘게 보냈고 가을만끽 캠프도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누비며 잘 다녀왔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달을 마무리하면서 내일도 오늘날만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 열린터 생활인들은 이달 초, 눈발에 굴러도 끄떡없을 두터운 패딩과 겨울티셔츠 등을 장만하여 월동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맘에 드는 옷을 고르느라 장바구니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거듭한 끝에 성공적인 쇼핑을 마쳤습니다. 열린터에서 상당 기간 살다보면 어느덧 옷가지와 살림살이가 늘어나곤 하는데 새로 입소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옷을 나눠주고 챙겨주면서 한 식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성교육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4회에 걸쳐 성인권교육을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인들 간 나이와 지식, 경험 등에 차이가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2월



♥ 벌써 한해도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성인권 교육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보냈고 내년은 어찌 보낼 것인지 여성주의 타로카드를 골라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용설명서를 적어 발표함으로써 나에 대해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놀라고 기겁하며 재미있게 즐겼고, 하얀 케이크에 불을 켜고 후원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9월



♥ 뜨거운 햇살아래 땀방울을 흘리며 임했던 자기방어훈련도 끝이 나고 각자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새로운 생활인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한층 더 활기를 띤 모습입니다. 뮤지컬 "레베카"를 보고 돌아오는 길,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각자의 폰으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다시 한 번 그 전율을 느꼈고 배우들 못지않은 삶을 향한 열정으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11월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야매

올해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무사히, 무사히 그렇게
언 길을 켜안은 연탄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단단

들어도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다.
성폭력의 문제는 판사, 검사, 경찰, 애비, 엄마....의 문제들은
아직 10정도나 밝혀졌을까?
피해자가 고소했던 일이 피해자를 의심하는 이유가 되는
법의 무력지대들...
“함께”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
그 혼한 위로의 말을 이 모임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이면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러함에도 여기 있다는 사실이 행운이겠죠!

작은 말하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용기

몇 년 만에 따뜻한 자리
기쁘고 슬프고 아팠어요.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지받고 싶어요.
함께 들어주고 말하고 편이 되주고 편들어주세요.

소중한
엔젤

새롭게 태어난 나를 사랑한다. 이제라도....

은새

항상 너의 곁에서 늘 지켜줄게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동심 파괴다. ㅠ

명아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진

푸른
나비

꽤 막힌 벽 사이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길은 내가 온 길뿐이고 벽이 다 막고 있는....?
그 벽 사이에 문이 있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힘들게 걸어오고 또 걸어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걸을 수 없는건가...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문이 어디 있는지 하지만 벽 건너의 빛이 존재함을
미세하게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작은말하기...
백만 개의 슬픔과 아픔
천만 개의 분노의 조사버림...
그럼에도 무한한 공감으로 언젠가, 아니
지금 웃어서 좋은날이었어요.

지은

몇 년 만에 따뜻한 자리
기쁘고 슬프고 아팠어요.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지받고 싶어요.
함께 들어주고 말하고 편이 되주고 편들어주세요.

몇 달 동안 고민했던 일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해답은 제가 찾겠지만 의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H

제이

나 한 달 또 살아서 여기 왔어요!
자해도 자살도 안하고 일하고 있어요.
나 살아있어 괜찮아~

지은

이번에는 작은말하기를 기다리는 한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힘든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를 꺼내기가 아직은 어렵네요.
일을 빠지고 온 만큼 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올해가 가기전에 기회가 되면 준비될 때 나누고 싶어요.

친절하게도*

서정연**

사랑한다고 말해서

너를 따라 갔다.

너는 때로는 삶처럼 신중하고 민첩하고 비를 맞은 듯 축축하기도 했다. 친절하게도 처음으로 거웃이 선명한 성인용 잡지를 보여주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어느 날은 친절하게도 상영관 벽에 나이 이른 여자를 세차게 밀치며 영화 속 흥분한 사내처럼 코피를 흘렸다. 친절하게도 너의 불룩한 아랫도리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해주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버림받아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무서웠다.

엄마는 오지 않았다.

죽은 형 이야기를 할 때는 슬퍼 보여서 너를 따라 무덤에 갔다. 너는 친절하게도 무덤가에서 손목시계를 보며 여자의 치모를 헤집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잤다. 뒤통의 떠는 뼈비처럼 보드라운 여자의 등을 할퀴었다. 달리 할 일이 없는 여자는 몸을 빠져나왔다. 여자는 여자를 지켜보았다. 맑은 햇살이 눈을 찔러서 여자는 여자에게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내가 아니니 나는 안전하다.

너는 때로는 비에 젖은 살갱이처럼 은밀하고 날렵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도 했다. 여행을 떠났다. 너를 따라 섬에 갔다. 친절하게도 너는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 첫 술을 마셨고 나는 너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뱀의 허물을 벗은 너의 알몸은 친절하게도 흥기였다. 목을 짓누르는 늪 같은 공포가 엄습했으므로 나는 나에게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친절하게도 섬에 갇혔다.

* 시집 『목련의 방식』(문학의전당, 2016)에 수록.

** 2012년 『심상』 신인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 시작.

열린터에서

나는
말했다

지우

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다.

모든 시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섞여가면서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삶의 무게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했다.
무게 없는 선의 안에 채워져야 할 모든 마음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
내가 틀릴 일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묻은 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나는 단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

산티아고에서
찾은 길

_ 두 번째 이야기

김다연

9

혼자 떠난 여행길에서 경험한 성폭력은
다연님을 생존자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에세이를 통해 그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본 글은 80호에 이어 이번 호까지 2회 연재합니다.)

1년을 계획한 내 여행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합의 후 정확히 한 달하고 보름정도가 지났을 무렵, 합의를 거행했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다. 여행 중 종종 아주 우연히, 남미 성추행 사건을 아는 다른 여행자들과 조우하게 되기도 했다. ‘재미있던’ 사건이라 표현했던 이도 있었다.

“남미여행 하셨어요? 저도 3월쯤 남미 갔다가 모로코로 넘어왔는데...”

“어 저도 그때 남미에 있었어요! 신기하다.

남미에서 멕시코랑 쿠바 거쳐서 모로코로 왔어요!”

“잘하면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남미 정말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는 사건도 많았는데. 왜 성추행 사건도 있었잖아요ㅋㅋㅋ 그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사람들이랑 맨날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하고”

그를 통해 당시 그 곳의 공기를 마셨던 사람들에게 성추행 사건이 큰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어 참 쓸쓸했다. 그 가십의 농도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기에 제법 덤덤해질 법도 했는데, 밀려오는 씁쓸함을 막을 만큼의 노련함은 부족했었나 보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었던 생각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사건이 언급될 때 마다,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단숨에 말을 꺼내곤 했다.

“아~맞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예요!”

마음에 축 가라앉은 무거운 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아직 어설픈 내 내면의 감정을 감당해야 했다. 또 공감의 경계에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수궁해야 했다. '어설픈 괜찮음' 이라면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나야. 라고 생각했지만 씁쓸함이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인지하고 수궁할 수 있도록, 말을 되도록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잡념에 흔들리지 말자고, 여행 중, 이야기를 꺼내면 좋겠다 싶은 타이밍은 계속되었다. 또 가십이 되겠지, 나는 알면서도 어김없이 말을 꺼내며, 배낭을 메고 여행 길 위를 주저 없이 걸어갔다.

#

여행 9개월 차가 되었을 무렵, 파리 에펠탑 앞에서 수중에 남은 돈을 헤아려 보던 나는 여행의 종착지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저히 완주할 수 없다는 서글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순례길에서 800KM의 아득한 거리를 걸으면 서 긴 여행의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여행 중 수차례 무너지면서도 거듭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불현듯 비책 하나가 떠올랐다. 순례길 위에서, 길 위의 순간을 담아낸 엽서를 그려 팔아보는 게 어떨까.

나는 제법 비장한 다짐을 품고 파리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촉감이 뽀뽀한 종이, 그리고 잉크가 제법 명랑하게 나오는 까만 펜을 10유로에 구하게 되었다. 실은 그다지 좋아하지도, 잘 그리지도 않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여행의 끝 자락, 설상가상 파리에서 돈을 잃어버린 탓에 빈털터리가 된 내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그 길을 그저 아주 간절히, 걷고 싶었다.

순례길 첫 날부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어 그림을 하나둘 그려보았다. 종이 위에 정성스레 그려진 선들이 모여 짙, 하고 근사한 그림이 튀어나왔으면 좋으련만, 그림이 업도, 취미도 아닌 손에서 그런 기적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토록 못난 그림엽서가 팔리기는 할까, 무탈하게 종착지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설령 다 걷더라도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있을까...! 단단했던 다짐이 조금씩 바스러져 갔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피곤에 잔뜩 절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자정까지, 소등한 알베르게 안에서 쏟아지는 잠을 마다하며 핸드폰 빛에 의지해 정성스레 그리기를, 그리다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다. 이 서툴기만 한 엽서에 대해 하나 둘 물어보기 시작했다.

“다연아 얼마야?”

엽서의 가치를 숫자로 매기는 것은 참 민망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순례길에 '도네이션 알베르게'가 있는 섭리를 따르기로 했다.

“내고 싶은 만큼! 맘에 들지 않으면 0.1센트만 내도 돼!”

엽서는 각자의 시선이 만든 가치에 따라 팔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주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친구를, 연인, 그리고 가족을 까만 잉크로 정성스레 담아냈다. 비뚤었던 선은 더뒀지만 조금씩 반듯해져갔고, 하루 팔아 벌은 돈으로 나는 다음날, 또 다음날도 걸어갈 수 있었다.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엽서를 사가는 그들을 보며 나 홀로만 이 순간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짙어진 고통의 기억으로 힘이 되어 주리라던 다짐을, 이 순간을 함께 누려서 작은 도움에 발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엽서 팔이 수익 중 반액은 성폭력 상담소에 기부를 하리라. 산티아고에서 내가 느낀 아픔과 닮은 누군가의 상처에 거름이 되고, 용기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엽서를 더 정성스레 빚어냈다.

그렇게 30일을 걸었다. 생장에서 출발하여 산티아고 대성당에 발 닿은 그날까지, 엽서를 건네어 받은 돈을 헤아려보니 170,74유로(환율 1240.12원 귀국

일 기준 한화 211,744원)였다. 체코에서부터 순례길까지 걸어 온 현명오빠는 제 일 짝 바게트로 끼니를 해결하며 내 엽서를 보고 과감히 5유로를 건넸다. 여행 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거쳐 순례길 중간에 재회한 현명오빠는 내게 100유로를 담은 봉투를 건넸다. 그새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듬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쓰는 100유로가 더 가치 있을 것이라는 편지와 함께. 그 외에도 스쳐지나가거나, 혹은 오래토록 함께 한 사람들이 오롯이 홀로 걸을 수 없던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줬다. 마음에 맡겼던, 어쩌면 부담을 맡겼을지도 몰랐던 엽서였을 텐데 그들은 기꺼이 사줬다.

아마도 그들은 엽서가 아니라 이 길을 반드시 걷고자하는 내 절절한 의지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던 그 마음을 사줬으리라. 그 다정한 마음에 너무나 고마워서, 엽서를 건넬 때 마다 괜스레 코끝이 찡해지곤 했다. 따뜻했다. 30일간 강렬하고 따가웠던 스페인의 태양을 등진 채 땀을 뻘뻘 흘리고 걸었 으면서,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서 나는 우습게도 따뜻하다고 느꼈다. 내가 건네 받은 것은 5유로, 100유로뿐이 아닌 그들의 따스한 마음이라서 그럴 테야. 마음에 울적울적 피어오르는 감정을 삼키고자 대성당 앞에서 뜨거운 태양을 이 불삼아 잠시, 그리고 오래토록 눈을 감고 지난날들을 회상해보았다. 산티아고에서 씹어 삼킨 고통과 상처를, 용기와 의지로 승화시키기까지 얼마나 찬란했는가. 여행의 첫날보다 조금은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 안데스 산맥의 거룩한 기운을 조금은 닮게 되었을까. 생각의 실타래를 늘어트리며 비로소 얼기설기 땀었던 매듭을 곧게 지을 수 있었다.

바람과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순례길 마지막, 여행의 끝자락이었다. ☯

상담소 OLD&NEW_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 수료 활동가편

수료 활동가 중신님과 신아님을 만나다

인터뷰이_조중신 & 김신아
인터뷰_노경현, 홍수진(나눔터 기자단 Meka 2기)

9

지난 12월 14일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 교육(이하 상담원교육) 1기 수료 활동가 조중신님과 29기 수료 활동가 신아님을 만나 상담원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담원 교육이 두 분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먼저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중신님(이하 '중신') 안녕하세요. 91년도에 상담교육 1기를 수료했고, 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으로 있는 조중신입니다.

신아님(이하 '신아') 안녕하세요, 신아입니다. 올해(2017년) 4월에 와서 9개월째 올림에서 일하고 있고, 교육은 지난 8월에 수료했습니다.

☯ 상담원교육을 받고자 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신 저는 원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소설 「상록수」의 채영신 같은 선생님이 되려고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의 아주 가난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과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아동학



● 중신과 신아

대, 성폭력 등 선택하지 않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모르는
다는 자책감, 무력감으로 힘들었어요.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일을 그만두었지만 살다보니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아
이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 딸이 '엄마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왜
집안에만 있냐,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딸이 살아
갈 2000년대는 다른 여성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마
침 여성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친구가 교육을 제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아 다른 활동가들의 경우는 전문상담원 기본교육과 수료가 필수조건인데,
저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도 받고
싶었던 교육이고, 적극적으로 사건 지원을 하고 싶어서 교육담당자로서 참여
했습니다.

**✿ 저희는 아직 상담원교육을 받지 않아서 교육 내용이 어떤지 감이 잡히지 않
아요. 신아님이 교육 받으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신아 성폭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날마다 공부하여 100시간을 채운

다는 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구소에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었어요. 문제해결을
도와줄 지침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만드는 동안 제게도 또 다
른 공부가 되었습니다.

**✿ 조중신 선생님께서 교육을 받으셨던 초창기에는 상담소의 분위기가 어떠했
나요?**

중신 이런 건물은 없었고 방 하나 빌려서 시작했는데, 상근자는 서너 명밖에
없고 자원활동가들이 일을 다 했어요. (웃음) 동고동락하면서 완전히 몰두했
죠. 똑똑한 여자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저를 많이 고양시켰고, 일을 같이 한
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자원활동을 하루만 와
도 되는데 계속 나왔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
습니다.

✿ 상담원교육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수분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나요?

중신 1기부터 6기까지 모여서 스터디도 같이 하고 원서 강독도 하고 했어요.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다들 곳곳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초창
기의 첫사랑 같던 열정이 그림습니다.

신아 저희는 정해진 모임은 없지만 같이 교육 받았던 분들을 여러 활동 현장
에서 만날 때가 많아요. 상담소 관련한 행사에서도 자주 뵙는데 매우 반갑습
니다.

**✿ 조중신 선생님께선 상담원교육을 받으신지 벌써 26년이 넘으셨는데요. 그
교육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중신 자원활동을 3년간 하다가 95년부터 상담부장, 열림터 소장으로서 있었습
니다. 15년 정도 일하고 퇴직했는데, 이유는 박사과정도 밟고 싶고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여겨서 예요. 열림터의 일이 많아서 세 시간씩밖에 못 잤거든요.
이러다 순직하겠다, 싶더라고요. (웃음)

어려운 내담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또 현장에서 힘들게 활동하는 동료들을 지키고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학이나 사회복지가 아닌 상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박사과정을 밟다가 2008년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NGO 활동가들 중 몇몇은 국회도 갔지만, 저는 처음 시작했던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의 길만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 신아님께선 혹시 상담원교육을 받으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신아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라고 밝힌 분이 있었어요. 수강생 사이에서 젠더 쿼어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일이 있었는데, 아쉬운 지점이랄까, 몇몇 상황에서 불편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불편하지 않으셨느냐고 여쭙봤더니 그 분이 '물어봐줘서 좋다, 교육이 끝난 뒤에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는 것이 반갑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배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큰 배움을 얻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100시간 동안 서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큰 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혹시 미리 세워둔 2018년 계획이 있나요?

중신 위기센터 소장으로 일하느라 다 쓰지 못한 논문을 완성하려고 해요. 또 센터 안에 정책도 제안하고 문제제기도 하는 성폭력 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그 곳에서 소장 일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신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피해자들을 인터뷰 했는데 활동가나 활동 단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어요. 활동가들이 지원할 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끝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떤 피해자분은 '변호사가 의견서 같은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오탈자까지 검토해서 준다, 변호사 입장에



● 경현과 중신

서는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하나, 싶겠지만 이젠 내 인생이 걸린 것이기에 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런 말들을 들으며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좋은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신 오늘은 저에게 매우 뜻 깊은 날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년퇴임하는데, 일을 시작하게 된 상담소에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신아 2018년에는 건강하자, 파이팅! ☯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리뷰

지금,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세린 _ 나뉘터 기자단 Meka 27기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회원놀이터 KSVRC 문화체육센터라는
기획으로 회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과 함께
생각 나누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도 위의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Women on Waves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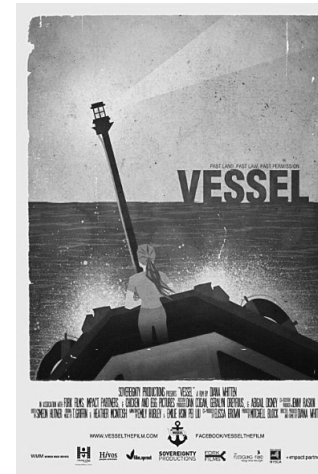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30여명이 함께 했고,

상영을 마친 뒤에 성과재생산포럼의 이유림 님,

녹색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 님과 함께

생각나누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뜨거워지는 요즘이다. 12월 2일에는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주장하는 검은 시위가 1주년을 맞아 다시 열렸고,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3만명의 청원이 모였으며 이 청원 운동에 청와대가 직접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여성단체들과 함께 낙태죄 폐지 운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동체 상영도 이런 뜻에서 기획되었다. <파도 위의 여성들>에는 낙태에 관해 몰랐던 많은 지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싸우는 과정에서의 상상력과 용기를 잘 드러낸 영화이기도 했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영화를 나누고 싶다.



● 파도 위의 여성들(Vessels, 2014)

감독 : 다이아나 휘튼
2014년 제8회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우리는 흔히 낙태 시술을 생각할 때 자궁 내벽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떠올린다. 하지만 임신 중단의 방법은 이밖에도 다양하다. 임신 초기에는 미프진과 같은 약으로도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 편리하고 부담이 덜한 방식이고, 낙태가 불법이 아닌 국가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인 곳에서는 의사가 여성에게 미프진을 처방할 수 없다. 낙태 시술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사는 여성은 비싸고 안전하지 못한 불법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옷걸이나 나뭇가지 따위를 사용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다.

<파도 위의 여성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Women on Waves'가 해온 싸움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이다. 이들은 낙태 불법 국가의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제공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들은 배를 이용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의 배에 낙태 불법 국가의 여성을 태워 공해(公海)로 갔다. 어떤 국가의 소속도 아닌 바다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미프진을 제공했다. 이 처방은 낙태 합법 국가의 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상 합법이다. 이들은 인터넷도 이용하고 있다. Women on Web (www.womenonweb.org)이라는 사이트를 열어 낙태 불법 국가의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보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낙태선(Abortion ship)'이라 불리기도 한 Women on Waves의 선박. 컨테이너에 병원과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의사 면허를 가진 이들도 함께한다.

자기가 먹으려고 소량의 약을 갖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합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소프로스톨만으로도 80% 확률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낙태 불법 국가의 여성들에게 알리기도 한다. 이들의

싸움이 쉬울 리 없다. 하지만 답답한 현실만이 영화에 가득하지는 않다. 혼자 가 아니라 함께 세상에 맞설 때 느낄 수 있는 유쾌함, 엉뚱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의 쾌감을 상영하는 내내 함께 느낄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세계 각국의 여성이 놓인 현실을 볼 수 있다. 임신중단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좀더 선진적일 것 같은 유럽 국가들도 그렇다. 영화 속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의 영향으로 낙태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Women on Waves는 국경을 넘어 싸워왔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우다 지치고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때,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겨냈을 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으면 한다.

영화 속 활동가들의 의연한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Women on Waves의 활동은 예상대로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영화에서는 조직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 Women on Waves의 배가 항구에 들어서자 한 목소리로 "잘 왔다, 나치들아!"를 외치는 남성들은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오히려 대담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생방송에 나가 미소 프로스톨을 이용한 낙태 방법을 말해버린다. 유명 관광지의 성모상을 점거하고 낙태 상담 전화번호를 적은 현수막을 걸기도 한다. "반발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검열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이들의 말은 우리에게도 용기가 된다.

영화에 나오는 언론의 모습도 한국만큼이나 답답했다. 어처구니없게도 기자들은 활동가들의 낙태 여부를 궁금해 했다.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실망시킨 지 압니까?"라는 말 같잖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활동가들은 무릎 꿇지 않고 서로에게 직접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언론 대응을 연습했다. 답답한 현실에 맞서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모습이 마치 자기방어훈련



●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의 성모상에 Women on Waves의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 출처 : Women on Waves 홈페이지, photo by Mrova)



●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이 끝나고 생각 나누기 시간이 진행되었다.

을 할 때 같았다. 한편, 위협적인 순간에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언론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 이를테면, 낙태 반대 세력이 Women on Waves의 배에 오르는 여성의 사진을 찍어 폭로하겠다고 했던 위협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께 배에 오르겠다고 자원한 여성들이 있었음을 기억한다거나.

공동체 상영에서 이유림님과 윤정원님이 다 같이 말한 내용이 있다. 낙태죄는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해 여성 자신이 아닌 국가가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을 가져도 되는가를 문제 삼는다는 것. 또 임신중절은 '선택할 권리'이기에 앞서 여성의 건강권과 알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고, 때로는 폐미당당의 '미프진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된 미래를 상상하면서, 또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연은 저마다 달라도 알고보면 우리 모두 함께 이어져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의 끝에 낙태죄 폐지를 기뻐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

성폭력 가해자 교육 연구 소모임 〈decoding〉 후기

동동_나눔터 기자단 Meka 2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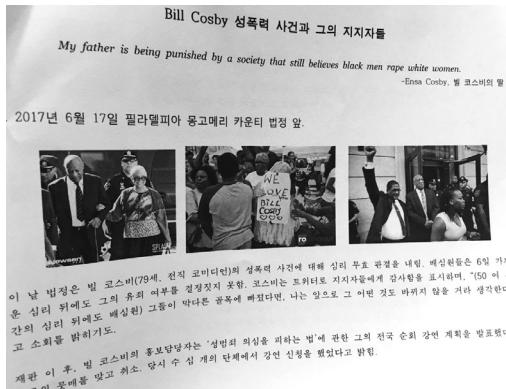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원활동가들과 회원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확자지결한 상담소의 일상에서 새로운 변화의 태동이 느껴지던
2017년 6월, 조금 특별한 회원 소모임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 연구 소모임인 'decoding'입니다.

지난 6월 조금 특별한 회원 소모임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성폭력 가해자 교육 연구 소모임인 'decoding'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주의의 관점 아래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전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뚜렷이 정해진 교육 매뉴얼이나 커리큘럼 없이 교육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교육 역시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추구하는 반성폭력운동의 길에서 몹시 중요합니다. 성폭력이 흔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작 바뀌어야 할 이들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담소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왔고, 이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피해자가 바뀔 수 있다면 가해자도 당연히 바뀔 수 있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decoding'은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 교육 연구 소모임 〈디코딩〉

소모임 'decoding'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열렸습니다. 5월에는 사전 모임으로 만나 저마다 자신에게 가해자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소모임의 코디네이터인 파이 외에 가해자 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다들 막연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교육으로 바뀔 수 있을지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교육’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말로는 바뀔 수 있다지만 막상 내 앞에 앉아 교육받을 소위 ‘가해자’가 얼마나 말귀를 알아들을까?”, “몇 차례 교육만으로 사람을 바꿔낼 수 있을까?” 솔한 망설임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6월에는 R.W. 코넬의 연구 저서 『남성성/들』을 읽고 다양한 남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성폭력 가해자 교육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자료나 단행본을 함께 읽으면서 법, 정책, 사회문화적 담론이 성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9월의 모임은 기존의 사법 패



● 해외 성폭력 사건 관련 발제 자료

러다임을 비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모형화하고 있는 ‘회복적 정의’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비판을 해보는 자리였습니다. 11월 마지막 모임에는 실제 교육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 등을 짚어보고 해외의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마다 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decoding’은 상담소의 자원활동가와 상근활동가, 그리고 교육/상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부터 열린 다섯 차례의 모임에서 좀더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폭력에 대한 고민이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저 자신을 다잡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을 고민한다는 것은 가해자들의 잘못을 함께 책임질 길을 찾는다는 뜻에서 급진적이지만 윤리적입니다.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을 넘어 포괄적 사회 변화를 꾀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에 앞으로도 열심히 동참하고 싶습니다. ☺

〈육식의 성정치〉 책임기 소모임

오매_두 달째 페스코로 살아보고 있습니다

9

지난 11월 14일, 린 회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육식의 성정치〉 읽기 소모임.

평일 저녁 7시30분, 상담소 1층에 6~10명이 모여

비육식 저녁먹거리를 나누고,

그 날의 한 챕터 분량 중 밑줄쳐온 부분을 해석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비육식에 관심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책임임을 하고 나며 하루하루 새로 보이는 것이 생겨서,

그 순간을 나누고 지지받는 소중한 커뮤니티도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어판으로 <육식의 성정치>, 영문으로 <The Sexual Politics of Meat>인 이 책은 구글 검색에서 ‘요리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이 책은 살아있던 동물, 시체가 되었다가 가공되는 과정을 머릿속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요리의 영역-미각의 세계에서 짝 하고 나타나는 별도의 단어 Meat(고기)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할 때 못 먹던 고기, 이제는 실컷 먹는대로 ‘경제성장’과 함께 언급되지만, 서구의 역사에서 육식이 어떻게 남성성의 상징이여 왔는지 분석하고, 2장에서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이 놓이는 위치와 동물이 놓이는 위치를 교차해서 살펴봅니다.



● 책읽기 소모임 <육식의 성정치>



● <육식의 성정치> 책 내용

비유되고, 동물 도살은 여성이 겪는 성폭력 상황에서 '마치 동물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비유, 은유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나와 그 존재를 '구분짓고 분리하는' 사고체계이죠. 지나가던 남중학생끼리 "꺼져 이 년아"라고 하거나, 굉장히 싫은 상황에서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할 때 쓰이는 년, 개의 느낌을 생각해보면요. 어떤 억압이 다른 억압을 비유로 삼아 표현되면, 각각의 다양한 억압은 위계화되기도 하고, 원래 그런 것처럼 강하게 여

여 억압을 자연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성폭력반대운동이 동물해방운동과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여성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성찰과 저항은, 동물이 처한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그것이 남성중심성의 통치구조의 갈래들이라고? 참 낯설기도 하고 과한 생각이라고 느껴지시려나요. 그러나 억압받는 어떤 집단이, 다른 억압받는 집단과 비슷하거나 엮여있다고 말해지면, 경계와 거부감이 드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억압들이 연결되어 있고, 연쇄적이라는 게 벌써부터 무겁고 지긋지긋할지도 모르겠어요.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동료, 친구, 회원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내게 닥치는 큰 고민 중 하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로서 고민하며 살아와 세상 억울함과 답답함을 다 안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생각해 본 순간의 놀라움과 충격. 그런데 그때 그 누구보다 그 문제를 부여잡고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것 또한 많이 보아 온 것 같아요. 억압에 저항하는 것, 말이 쉽지 이것을 내 삶의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다른 억압을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괴롭고도 또 놀라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이 책모임은 계속되니(7개장이 남았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이메일로 참여신청해주시면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함께해요.)



객체화, 절단, 소비. 객체화는 억압자가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대상으로 삼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부정된 존재는 죽은 객체로 전환되고, 절단 해체되는 과정에서 의지와 정체성은 산산조각나고, 소비되고 사라지지요. 여성폭력, 동물 도살을 떠올리면 이 개념과 실천이 주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은 서로에게 비유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억압을 설명할 때, 가령 '지구에 대한 성폭행' (생태학책)으로

상담소의 겨울냥이들

오매_2층에서 서식하는 닝겐



상담소 1층 주차장 언저리는 언뜻 봐도 큰 캣타워입니다. 상담소와 뒷집 스쿨오브무브먼트 있는 건물 사이에 적당한 높이의 담장이 있고, 그에 이어 두 옆집과 상담소 사이를 띄어주는 담장이 하나 있고, 그 너머엔 그

두 옆집을 연결하는 담이 또 있고, 두 담 사이를 넘을지대 아치가 연결하고 있고.. 옆집 할아버지가 고양이들을 싫어하신다던데 이 설계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네요. 언제나 담 사이를 유유히 건너나 앉아서 아웅다웅하고, 담에서 가볍게 뛰면 주차되어 있는 흰색 차 본넷에 착지해 식빵을 구우며 햇볕도 받습니다. 여름에 애기였던 치즈고양이 둘은 이제 1층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눕진 않네요.

활동가 몇몇이 추워서 주차장 한 귀퉁이에 두기 시작한 급식소는 지금도 여전히합니다. 다만 가을과 겨울 사이에 세 분의 존경스런 귀인을 만났어요. 그 녀들을 소개하려고요.

단단님은 2017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이끔이이신데요, 사전인터뷰 때 상담소 급식소를 봤지요. 밤마다 새벽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다니는 ‘캣맘’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피해생존자로 살아온 마음을 가장 밑바닥 시선에서 위로 받기도 하고,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주는 존재구나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해요. 길고양이를 동네고양이라고, 캣맘 캣대들을 ‘고양이활동가’라고 부르는 걸 소개해주셨어요. 겨울엔 물이 얼면 마시지 못하니, 오며가며 더운 물을 부어 달라는 메시지는 활동가들 모두 더운 물그릇을 들고 오가게 했습니다.



한해보내기 클럽안젤라를 했던 날 새벽, 뒷풀이를 하던 이들이 만난 분은 합정동 일대를 담당하시는 캣맘. 상담소 급식소에도 새벽에 물과 사료를 한 번 더 주셨던 거죠. 화들짝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가 인사드리니 “제가 더 고맙죠” 라고 하시며, 가방을 고쳐 메고 다음 급식소를 향해 가셨습니다. 날이 추워진 어느 날 물그릇이 스티로폼 용기로 더 놓여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가을과 겨울날들에 조용히 급식소를 변신시킨 이가 있는데요, 바로 열림터 생활인 H. 열림터 사무실에 오갈 때 보아둔 급식소에 학교길에 용돈 모아 산 사료를 부어주고, 다음날엔 물그릇 하나 더, 그 다음엔 비닐과 천으로 만든 집이, 그 다음엔 상자와 안 입는 외투로 만든 집이.. 드디어 마지막 집을 동네 냥이들이 맘에 들어 합니다. 들어와 자고 쉬고, 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



201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주)비어엔젤스, 박선하, 권수경, 권지연, 김가현, 김정희, 김민우, 김민태, 김봉수, 김성자, 김세운, 김순원, 김승준, 김신아, 김영지, 김윤혜, 김재설, 김주형, 김지은, 남상욱, 박선희, 박종훈, 박준숙, 박지우, 서주혜, 심성보, 안지희, 여지윤, 오희중, 이균호, 이난주, 이문희, 이상용, 이선영, 이승철, 이아람, 이애린, 이유미, 이희동, 안종진, 임금희, 임지영, 임효진, 장윤성, 전화정, 정다솔, 조경오, 조영무, 조창현, 조혜인, 천안자암초등학교, 천정아, 최수진, 최연수, 표아림, 한진희, 허정은, 황소영(이한)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aaami, 가이안선, 강가에, 강경인, 강공내, 강기순, 강남식, 강동원, 강동화, 강등록, 강버들, 강보길, 강수지, 강영, 강영순, 강영희, 강인화, 강정희, 강푸른,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보경,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태우, 광경화, 광상아,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광혜선, 구민희, 구현지, 권구홍, 권김현영, 권서현, 권소영, 권애진, 권인선, 권인숙, 권경, 권주희, 금철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희, 김정선, 김경아, 김경현, 김경희, 김계진, 김광만, 김광진, 김규원, 김기태,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난형, 김남이, 김다미, 김다원, 김대숙, 김도홍, 김도희, 김동영,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명진, 김모래, 김문영,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주, 김미지, 김민규, 김민기,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새별, 김서화, 김석제, 김선정, 김선래, 김선미, 김선아, 김선에, 김선에, 김선영, 김성동, 김성문, 김성미, 김성훈, 김소라,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민, 김수잔, 김수진, 김순영, 김순자, 김승연, 김신아, 김신효정, 김아람, 김아름,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빌,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용란, 김원식, 김원우,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웅진,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률,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정민, 김정완, 김정혜, 김종수(권상범)/리치몬드, 김종웅, 김종철, 김중현, 김중희, 김주영, 김준호, 김지민,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해리), 김지훈(동동), 김진근, 김진주, 김재원, 김재주, 김은하, 김솔배, 김탁환, 김태진, 김태현, 김하나, 김하나, 김하정, 김한선혜, 김혜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련, 김혜림, 김혜민, 김혜숙,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운, 김혜정, 김혜정(오매), 김혜진, 김홍미리,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수정, 나윤경, 나인선, 나재은, 남민영, 남수민, 남슬아, 남인순, 남정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미선, 노복미, 노선아,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희설, 더트리그룹(주), 도병욱, 도상금, 락길자, 류란, 류효은, 복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성훈, 문수연, 문재연, 문지영, 문지원, 문진우,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훈, 박기순, 박다원, 박덕일,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현, 박민주, 박보영, 박부진,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설희, 박성용, 박성주, 박성훈, 박세민, 박소라, 박소림,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아리(Park Aileen), 박영수, 박영주, 박예리, 박윤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지,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이은희, 박인기,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선, 박종웅, 박주연, 박준민,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 박진영, 박진표, 박찬경,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숙,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혜하, 박효진, 박희은, 박희정, 방기연, 방은제, 배경, 배성진, 배수현, 배순희, 배은경, 배자하, 배정철, 백경중, 백명숙,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성희, 백윤정, 백인에, 백지선, 백현, 변순임, 변필진, 서관일,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민자, 서순진, 서승연, 서용안, 서인석, 서정애,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현규, 서효원, 서희순, 석승민, 선희갑, 설연자, 성귀석, 성예랑, 손경이, 손관련,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용원, 송원규, 송은숙, 송현민, 신동현, 신명숙, 신상호, 신성용, 신승훈, 신은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혜, 신필규, 신한나, 신현, 신혜은, 심은희, 심조원,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소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지은,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혜수, 안형운, 양민희, 양성욱, 양수안나, 양영희, 양은주, 양은혜, 양정은,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오경희, 오민설, 오선곤, 오세규, 오세희,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연희,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영, 우완, 원경주, 원민정, 원민혜,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유경희, 유계옥, 유민수, 유보람, 유성혜, 유세경, 유숙주, 유예리,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현미, 윤나래, 윤범식, 윤소정, 윤수련,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은정,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희연, 윤희영, 윤선하, 이진경, 이정미, 이경숙, 이경은, 이경하,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규화, 이나영,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대명, 이동구, 이동규,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선,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민휘, 이부덕, 이상미, 이상재, 이상준, 이새롬, 이선영, 이선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 이수안, 이수진, 이수진, 이슬기,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서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택, 이웅창, 이웅택, 이우진, 이원경, 이원홍, 이우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선, 이윤희, 이은,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재원, 이재원,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하, 이종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는, 이지행, 이지혜, 이지훈, 이진아,

이창원, 이창희, 이태숙, 이태호,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실, 이혜정, 이혜지, 이호진, 이홍연, 이화진, 이희수, 이희화, 임진호, 임경진, 임동훈, 임서영, 임선자, 임수민, 임소영, 임여경, 임유영, 임유정, 임주희, 임지숙, 임형숙, 임홍설,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소, 장미정, 장민경, 장성연,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윤경, 장윤정, 장은미, 장은영, 장익수, 장재은, 장정희, 장진, 장철우, 장혜란, 장효정,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수인, 전수원,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옥, 전유경, 전유미, 전은유, 전정숙,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귀원, 정기영,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보, 정민수, 정민이, 정보배, 정복련, 정선미, 정소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승범, 정여진, 정영미, 정영희,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은선, 정인호, 정장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은, 정지은, 정지현, 정지희, 정진숙, 정진주, 정진화, 정현, 정현주, 정혜윤,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동현, 조무호,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영선, 조용연, 조윤정,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식,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성은,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희진, 지승경, 지인숙, 지인순, 진새롬, 차선주, 차성안,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근우, 최기영, 최대원, 최동식, 최란, 최미숙, 최보원, 최성숙,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신혜,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영주,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우영, 최용, 최원일, 최유진,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정은, 최지나, 최지나, 최지영, 최지은, 최진경, 최진안, 최효선, 최희중,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표승휘, 하다영, 하연수, 하은주, 하종식, 하주선, 하주현,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송진, 한송희, 한영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림, 한채운, 한희정, 함경진, 허남주, 허라금, 허민숙, 허선원, 허성희, 허은주, 허이화, 허준식, 허지음, 허혜진, 현정순, 혜장스님,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진경, 홍창락, 홍혜선, 황미선, 황선유, 황성기, 황성임, 황숙희, 황순경, 황재호,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 변치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열, 강명두,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경현, 김미주, 김경희, 김지은, 김효선,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노주희, 박미란, 박부진, 박성환, 박윤숙, 박종훈, 박진우, 배경, 배순희, 배정철, 송미현, 신상호, 오주현, 유정화, 이경환, 이덕화, 이명숙, 이문희, 이미정, 이영희, 이유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미화, 임소영, 장윤경, 장철우, 조인석, 조일래, 최보원, 최수진, 최영애, 최진주, 하동호, 홍순기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린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재두, 강지아, 고화정, 권은숙, 금보경, 김경태, 김소연, 김수잔, 김수진, 김승일, 김신아, 김영지, 김유숙, 김유정, 김윤혜, 김자연, 김태연, 김현숙, 김혜원, 김효진,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류종현, 문숙영, 미씨유림, 민슬기, 박명식, 박상희, 박선영, 박아름, 박인필, 박정옥, 박준숙, 박희주, 배정원, 백미숙, 서법원, 서주혜, 서진희, 서혜인, 소름티서초클럽, 송미현, 신경혜, 심진석, 심현실, 안분순, 안효선, 양미초, 양윤희, 오선호, 오정희, 오희중, 유미란, 유선옥, 유예니, 유예리, 유진영, 윤수연, 이경선, 이계형, 이명희, 이미홍, 이민휘, 이병주, 이선영, 이성아, 이수연, 이예담, 이옥영, 이재현, 이정봉, 이정화, 이종국, 이주실, 이찬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호중, 임유영, 임지선, 임치순, 장다혜, 장희진, 전승기, 전혜영, 정순희, 정정희, 정정희, 정창수, 조경진, 조성은, 조윤기, 조은희, 조중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지나위니강서센터(이주란), 채송희, 최가람, 최강현, 최연수, 최유미, 최정원, 최정원, 최정희, 추주형, 표아림, 하동호, 한국아마자카마작, 한전부녀회, 한진희, 허복옥, 허정연, 허정은, 홍남영, 홍윤기, 황동하, 황선권, 황유나, 황은순

{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쉼터 열린터는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린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회원 문의: 감이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열린터 회원 문의: 백목련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훈훈한 기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

백묵련 열림터 활동가의 구수한 옥수수 한 자루와 노오란 호박고구마 10kg
김미순 전성협 상임대표의 달달한 아이스크림 한 봉지 가득
모모 전 활동가의 탱글탱글 포도 두 상자
이경환 이사님의 쫄깃쫄깃 꽃감 한 상자
아름다운재단 이선아 간사님의 풍미좋은 믹스커피 세 상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쌀과 각종 곡류와 견과류
박주미 자원활동가의 돌돌 롤케익
최영애 이사님의 각종 화장품 한 보따리와 족족 파운드케익
공명 전 활동가의 커피, 손세정제, 박카스
차차 전 활동가의 기막힌 향의 커피빈과 달콤 쿠키
유네 열림터 활동가의 무공해 노자감귤 10kg
조인섭 변호사님의 우아한 와인 20병
조용연 후원자님의 단단한 단감 한 상자
김효선 후원자님의 상큼한 굴 한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보내주신 원기충전 음료 한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새콤달콤 포도 다섯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쫄깃쫄깃한 떡 한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전자제품+선물 꾸러미
〈여성신문〉에서 요긴한 생활용품(샴푸린스, 비누, 치약세트)들
〈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에서 커피와 음료수 한보따리
〈알디프〉에서 텀블벅 대박상품! 아이스티 샘플러 두 세트와 후원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수분충만한 화장품과 크리넥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상큼한 향의 디퓨저 세트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구호식품 라면 10상자

{ 열림터 }

매주 수요일 언니네뒷밭 여성농민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야채꾸러미 한 박스씩
매주 수요일 암스테르담 건강한 빵 한 바구니씩
채송희님 따끈따끈한 빵 한 바구니
100주년기념교회 감사절기념 감사한 떡 한 상자
용수스님 마음공부에 도움이 되는 신간 다섯 권
아모레퍼시픽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 여덟 상자
존타클립 정성껏 만들어 주신 약밥 두 통
서서울농협 여성조직장 따끈한 집밥을 완성해 줄 쌀 20kg 열 포대
한강중앙교회 산타처럼 주고 가신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 20상자
미씨유럽 황반아님 생활인들을 한하게 밝혀주는 원예용 생화 꾸러미 매월 1회씩